

# “절 통장에 도장 받고 새해 소원 이뤄요”

2009년 새해 첫 날 아침,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 약사전은 700여 사부대중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일부 불자들은 법당 밖에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했다.

경제 한파만큼 매서운 영하의 날씨 속에 이렇듯 동화사가 북적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제침체와 등으로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수행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염원 때문이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법당 밖에서 합장하고 있는 신도나 법당 안 신도 모두 환파를 이긴 뜨거운 신심은 너와 나는 물론 법당 안팎의 경계도 없이 융광정진으로 한마음이다.

“나무 동방만월세계 십이산원 약사유리광여래불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금당선원, 내원암선원 등에서 스님 99명이 동안거 정진 중인 조용한 산사에 약사여래불의 명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약사여래 12만배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약사정근과 약사다라니는 새해 원단의 햇살 아래 만물을 범용으로 휘감는 듯하다.

동화사는 경제난극 극복을 위한 ‘약사여래 12대원 12만배 120일 기도’를 개최해 1월 1일 입재식을 봉행했다. 창선 스님의 집전과 함께 500배 정근으로 시작한 법회는 찬불가, 보현행원 봉송, 발원문 봉독, 천도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허운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팔공산은 약사신앙의 발원지로, 약사여래 부처님은 마음과 육신의 모



동화사는 새해를 맞아 약사여래 12대원 성취를 위한 12만배 기도정진을 입재 했다. 사진은 통일약사여래대불 앞(좌), 약사전(우)에서 기도 정진하는 불자들.

## 대구 동화사 약사여래 12만배 기도 입재



든 병을 없애준다”며 “절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어려울 때가 공부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발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우리는 현재 나누지 않아서 부족하고 불행한 것”이라며 “지나친 소유에서 벗어나 집착을 버리고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신앙의 발원지인 팔공산에 위치한 사찰로, 1992년 통일약사여래 석조대불 봉안 후 약사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 날 법회에서 1000배를 회향하며 12만배의 문을 연 박유회(60·법명 회지수)씨는 “가족의 건강이나 경제·환경문제는 나 혼자만 잘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약사여래 기도를 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발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가천도기도를 겸해 기도에 참가하게 됐다. 장금자(53·법명 성불심)씨도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가족들의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다”고 발원했다. 기도 참가자들은 4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500배씩 정진하고, 하루 1000배 회향마다 ‘절 통장’에 도장을 받게 된다. 동화사는 참가자들이 보다 힘차게 정진할 수 있도록 1만배를 회향하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만배를 회향하는 때 10일마다 각 띠별 축원 및 천도재를 봉행

하고,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지안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성우 스님(대구 파계사 주지), 무비 스님(조계종 전 교무원장), 성문 스님(동화사 회주),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을 초청해 법문한다. 원단 아침 팔공산 기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약사여래 정근 소리가 우리 가슴에 울 뵈날을 앞당기고 있다. 김진성 기자·손은철 대구지사장

### 동화사의 변화 ‘신바람’

## 수행과 포교, 약사신앙의 중심



2008년 5월 금당선원 하안거 정진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청도·성주·칠곡·달성군 등에 산재한 90여 사찰을 아우르는 대불찰로 대구시 팔공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일찍이 약사신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동화사가 2009년을 맞아 새로운 발돋움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수행, 약사신앙의 중심지

동화사는 금당선원, 내원암·양진암·부도암선원 등을 갖춘 수행도량이다. 특히 한국 선사의 법을 이은 조실 진제 스님의 ‘전통과 현재를 잘 융합한 수행’에 대한 원력은 많은 출·재가 수행자를 이끌고 있다. 금당선원에서 31명의 수좌스님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하는 등 현재 동화사 산내암자에는 99명의 조계종 스님이 동안거 결제중이다.

동화사는 또 1992년 높이 33m, 둘레 16.5m의 통일약사여래석조대불을 봉안, 대불 안에 부처님 진신사리 2과를 모신 후 약사여래 신앙 중심지의 면모를 구축했다. 동화사는 현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약사다라니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약사여래 12만배 기도’를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 #동아시아 10대 명소 선정 계기로 포교에 전력

동화사는 2008년 제5회 동아시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동아시아 10대 명소’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사찰 주변 옛길을 복원하고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지역시민·관광객의 휴식처로 탈바꿈해 진정한 명소로 자리매김, 포교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를 초청해 취업설명회나 사회갑등 해결을 위한 상담코너 등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찰출세 이지를 보다 쉽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개편해 사부대중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계기로 초조대장경 복원 등 국제화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211개국에 참가하고 연인원 60여 명의 시청자를 자랑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단일 대회로는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동화사는 이에 맞춰 국제적인 도량으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의 약사신앙 사찰과 교류하는 한편, 한·중·일 불교화술대회를 개최해 아시아 지역 불자들의 시선을 모을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해설사 확충 등도 계획 중이다. 또 2011년 소실 1000년을 맞는 초조대장경을 복원해 국제적 문화재를 되살리는 것도 발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인터뷰-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 “지역시민 휴식처로 거듭날 것”

### 약사여래 12대원 성취발원 ... 지역민과 상생모색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공황사태를 맞고 있는 요즘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자 12만배 기도를 마련했습니다.” 1월 1일 ‘약사여래 12대원 12만배 12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한 대구 동화사 허운 스님은 이와 같이 법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운 스님은 “약사여래의 12대원

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아픔의 극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이 종교·지역·신분 간 갈등이 다분한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정신적 귀의처로서 약사여래 신앙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앞으로 약사여래 기도를 동화사의 대표적인 법회·기도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는 매주 둘째 주 토요일 봉행되는 약사다라니

철야정진과 함께 불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사는 이외에도 2009년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허운 스님은 “개산대제나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기간 동안 대구 약령시, 지역 의료계 등과 연계해 독거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취업설명회, 사진·그림 전시회, 작은음악회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해 첫날, 약사정근의 힘찬 법음으로 문을 연 동화사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다. 2006년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은 허운 스님은 동화사 교무국장, 보림사·은적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제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12월 대구불교방송 제4대 사장에 취임해 지역·방송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2011년 세계육상대회 성공기원

# 약사여래 12대원 12만배 120일 기도

12만배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팔공산 동화사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재앙을 소멸, 의복·음식을 만족하게 하는 등 12가지의 큰원을 세운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도량으로 2011년 세계육상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약사여래사상과 신앙으로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12만배 12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매일 1천배, 매 10일마다 12회 띠별 축원, 천도재, 큰스님 법문  
기간 2009년 1월 1일 ~ 4월 30일까지  
동참금 띠별 1인 2만원 천도재 영가 1위 1만원  
매일 오전 9시 ~ 11시까지 기도정근 및 500배  
매일 오후 2시 ~ 4시까지 기도정근 및 500배

**12만배에 도전합시다!!  
1만배라도 도전해 보세요!!**

괴롭고 힘든 삶일지라도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지혜와 복덕이 생깁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문의 053)982-0101 www.donghwasa.net